

# 1인 가구 '혼명족' 맞춰 명절 음식도 소량·완성형 시대

### 편의점 4사, 11첩 반상·K 명절 풀음션 한판 등 도시락 마케팅 대형마트·전통시장도 간편식·소포장 판매... 1인 가구 공략

매년 1인 가구가 증가하며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대목을 맞아 소량만 포장한 명절 음식을 출시하는 등 소비자 마케팅을 다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달리 대가족이 모두 모여 차례를 지내는 경우가 줄고, 홀로 명절을 보내는 '혼명족'이 늘어나는 등 명절 문화가 변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4사(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는 이번 설 명절 연휴 직전 '명절 도시락'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GS25는 지난 3일 '이달의도시락 2월 설 명절 편'을 선보였다. 해당 제품에는 전주식 나물비빔밥, 돼지갈비불고기, 떡갈비 등 9가지 반찬을 담았다. 이 밖에도 명절 먹거리인 '떡국', '모듬전&잡채' 등도 출시했다.

CU 역시 설을 겨냥해 대표 음식인 7가지 전을 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전'을 새롭게 선보였고, 세븐일레븐은 11첩 반상 콘셉트의 '기운찬상 도시락'을, 이마트24는 각종 나물들과 너비아니 등 12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K 명절 풀음션 한판'을 내놨다.

해당 제품들은 기존 도시락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 판매했으며, 편의점 업계가 매년 증가하는 혼명족 소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 제품이다.

편의점 업계에서 최근 수년간 명절 음식을 콘셉트로 한 품목을 출시하거나, 간편식 마케팅에 힘쓰는 것은 1인 가구 증가세 및 명절 문화 변화 등의 사회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후 대가족 체제의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데다, 2010년대부터는 핵가족조차 조개져 1인 가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10여년 전인 2015년 520만 가구에서 매년 증가해 2024년 말에는

804만 가구에 달했다. 전체 인구 대비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4년 기준 36.1%로, 10명 중 3~4명이 홀로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명절에 가족이 한 데 모여 차례상을 차렸던 과거와 달리 개인 시간을 갖는 등 명절 문화가 변화한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명절 음식의 소규모화, 간편 소비 등이 업계 전반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전과 잡채 등 명절 음식들은 조리를 위한 준비물 마련 단계부터 조리 과정이 번거롭다는 점에서 1인 가구에 '편의점 도시락'이 각광받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및 편의점 도시락의 고급화 등으로 도시락을 비롯한 간편식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5% 수준까지 확대됐다.

또 현장에서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명절 음식을 콘셉트로 한 도시락 매출이 전년 명절보다 20%가량 증가하는 등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명절 도시락 판매 지점별 분석에서는 대학가와 원룸촌 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의 지점에서 매출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 업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전통시장, 동네 반찬집 등에서도 명절 음식 판매 트렌드가 소량화, 간편화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전 등을 냉동제품화 하는 등 간편식으로 만들었고, 전통시장에서도 명절 음식 양을 줄이는 모습이다.

나주 목사골시장의 한 상인은 "예전처럼 명절 대목이라고 음식 재료만 내놔서는 망하기 십상이고, 음식을 완성시켜서 내놔야 하는데 보통 혼자 명절을 보내시는 어르신이나 집에서 명절 분위기가 내려고 오시는 분이 많다보니 양을 반으로 줄여서 팔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직접 버무려요”...뉴욕 학생들 김장 체험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데모크리시 프렌드 차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김치담그기 체험을 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0일 미국 공립 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김치담그기 체험과 K-푸드 급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7일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에 김치를 포함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 김치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aT 제공)

## 밥상물가 부담 줄인다...롯데마트·홈플러스 먹거리 할인

### 롯데마트, 돼지고기 반값...홈플러스, 도시락 2종 990원 판매

설 명절 연휴 이후 대형마트 업계가 각종 먹거리를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 성수품과 명절 선물 등으로 지출이 많았던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마트는 “20~25일 수입 돼지고기 할인 행사인 ‘끝돼 DAY’를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물가 안정과 더불어 다가오는 ‘삼삼데이(삼겹살 데이:3월 3일)’를 겨냥한 프로모션으로,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다.

끝내는 ‘끝장 돼지’의 졸업말로, 현지 제조사-롯데 신선품질혁신센터-점포 전문 정형사의 3단계 정밀 손질 과정을 적용한 수입 돼지고기 브랜드

다. 해당 브랜드가 론칭된 뒤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입 돼지고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0%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대표 상품인 ‘끝돼 삼겹살·목심(100g)’은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50% 할인하며, 한정살과 등갈비도 40% 저렴하게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이번 행사를 위해 롯데슈퍼와의 협업을 통해 수입 돼지고기 물량 200 t을 확보했다.

홈플러스는 설 연휴 직후 소비자들의 식비 등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19~20일 이틀간 ‘홈플러스 도시락 2종 초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홈플러스 고추장&간장불고기 도

시락’과 ‘홈플러스 햄&소시지 도시락’ 2종을 기존 가격 대비 80% 이상 할인한 990원에 판매한다. 총 4만 팩을 준비했으며, 1인당 구매 수량은 2개로 한정했다.

고추장&간장불고기 도시락은 두 가지 맛의 불고기와 만두, 소시지볶음, 볶음김치로 구성됐고, 햄&소시지 도시락은 햄, 소시지, 계란말이, 어묵볶음 등이 담겼다.

한아름 홈플러스 텔레사업장은 “이번 설 연휴 동안 식비, 유류비, 세뱃돈 등 각종 지출이 많았던 고객들을 위해 파격적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가 높은 물가로 힘든 일상으로의 복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이마트, 생필품·신학기 용품 할인 행사

### 생리대 5000원 균일가 행사도

이마트는 “오는 25일까지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생활필수품과 먹거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혜택으로는 ‘생리대 5000원 균일가 행사’가 꼽힌다. 행사 기간 중 생리대 50여종을 행사카드로 결제 시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균일가 상품 중 80% 이상이 기존 1만원 이상 상품으로 평균 할인율이 50%를 넘는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를 위해 평소 일주일간 판매량의 3배인 25만여개의 물량을 마련했다.

더불어 신학기 시즌을 앞두고 각종 전자제품, 텀블러, 실내용 등도 할인한다.

‘레노버 태블릿’, ‘삼성 갤럭시북4’는 행사카드 결제 시 각각 5만원 할인하고, 캐논과 엡손 복합기 전 품목도 최대 20%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또 잔스포츠, 이스트팩, 키플러 등 유명 브랜드의 가방 전 품목도 행사카드로 결제 시 30% 할인하며,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캐릭터 식기를 최대 30%, 모스 텀블러는 최대 40% 저렴하게 제공한다. 아동 실내용은 2족 이상 구매해야 30% 할인된다. 이 밖에 베이킹소다, 섬유유연제, 바디워시, 바디로션, 리스테린, 크린랩 등 생활필수품들도 저렴한 기획상품을 내놨다.

이석규 이마트 일상용품 담당은 “가격 할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등 구조적 혁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 맘스터치, ‘중식 대가’ 후덕죽 셰프 레시피로 버거·치킨 나온다

### 3월 12일 출시 예정

맘스터치는 “오는 3월 후덕죽 셰프와 협업한 신메뉴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후덕죽 셰프는 신라호텔 중식당 ‘팔선’에서 43년간 근무했으며, 최근 넷플릭스 요리 예능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출시될 신메뉴는 버거 2종과 치킨 1종으로, 3월 12일 출시 예정이다.

맘스터치는 신메뉴 출시를 앞두고 오는 3월 3일 고객들을 초청해 신메뉴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중식의 정통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후덕죽 셰프가 전 세대에 걸친 폭넓은 맛의 공감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통 중식에 기반한 후덕죽 셰프만의 조리법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이  
전 국민의 경제부담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p>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p> <p>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p>	<p>각 보험회사 대표번호</p> <p>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p>
--	--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